

20~40代 女性の 外貌觀心度에 따른 外貌管理行動

金成男* · 李京淑

西京大學校 美容藝術學科 教授*, 西京大學校 美容藝大學院

A Research of Apperance -Mnagement Bhavior in 20~40's women according to Degree of Apperance Concern

Kim, Sung-Nam* · Lee, Kyoung-Sook

Prof., Dept. of Beauty Art, Seo Kyeong University*
A graduate student, of Beauty Art, Seo Kyeo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o research how women aging from 20 through 40 Apperance -Mnagement Bhavior and care of their outer looks from a beauty treatment perspective. This research should help satisfy the wants of women who are the main clients of the beauty products and help the beauty industry to produce new products and also to help out on their marketing strategy.

In order to searc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our target women,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the sub-factor of interest in beaut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as used. In order to divide the group according to Degree of Apperance Concern 'sub-factor, cluster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Scheffe'-test, χ^2 -test was used, and to find out the difference on how they care of beauty analysis of variance was used, and further more to summarize the result of analysis of variance Scheffe'-test was used.

As a result, in all different ways of beauty caring, weight resisting, skin care and plastic surgery summed up similarly among the self-care group, hair care ended up with similar results among all three groups: self-caring group, no interest in beauty at all group, and the too conscious of other eyes group, and results on the interest rate of clothing ended up similarly among the other-eye conscious group, beauty care interest group, and the self-care group.

Key Words : Degree of Apperance Concern(외모관심도), Apperance -Mnagement Bhavior (외모관리행동), Apperance Indifference grop(외모 무관심 집단), other's conscious of appearance interest grup(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 self-management of appearance interest group(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

I. 서론

현대 사회는 문화와 매스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미의 개념이 다양해지고 개성이 강한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내면적인 인품과 인성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결과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외모관리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태에 놓였으며, 외모관리는 이제 필수 조건이 되었다.

요즘은 원만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외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외모도 그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비 호감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외모지상주의 풍토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나은 외모를 갖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노력한다.

살아 썬 사람은 자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으로 간주되기 쉽고, 늘씬한 몸매를 가진 사람은 그 만큼 자기관리도 철저한 사람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외모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경쟁력이 되었으며, 외모에 대한 노력은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 분위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욱 더 외모에 집착하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또한 보다 세분화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 20~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관심도와 그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실태를 미용외모관리행동의 관점으로 보다 세밀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내용은 현재의 외모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20~40대 여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외모 관련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의 유행과 사회 환경의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미의식과 외모관리행동도 함께 달라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현대인의 외모관리

외모관리행동이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자신이 기대하는 대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 즉 의복, 화장품, 액세서리, 소품 등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Kaiser(1990)에 의하면 외모관리란 '개인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자기표현(self-presentation)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외모관리는 자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적 상황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감을 보여주는 과정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행동은 전혀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일 아침 의복을 선택하고 화장하는 행동을 포함한 외모를 가꾸는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외모관리는 자신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나갈 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 외모상징의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자신을 이해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¹⁾

아름다운 신체 이미지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변화되어 왔고, 이제 더 이상 신체는 노동의 도구가 아닌 부와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게 되었다.²⁾ 또한 사람들의 소비문화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확산되면서 대중매체가 발달하고 이에 등장하는 완벽한 신체를 접하면서 외모를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조되었다.

오늘날 여성들의 외모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현상은 '타고난 미모'라는 과거의 개념과 달리, 오늘날 여성의 외모는 명백히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념과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 형성되면서 여성들의 외모관리에 대한 요구와 기대를 점차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현상은 신체와 관련된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³⁾

제일기획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25-34세의 여성은 외모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라고 여겨 헬스, 피부 관리, 성형수술, 다이어트 등을 통한

외모관리에 가장 적극적이었으며 이들의 78%는 외모 가꾸기가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한다 고 하였다. 또한 '용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작용한다.' 에 68%가 긍정적인 답을 했으며, 69%가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출하면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외모 가꾸기를 위한 화장이나 헤어, 의복을 통한 전체적인 이미지관을 위하여 하루 평균 약 53분을 투자하며, 거울을 하루 평균 약 8.3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3%는 자신의 평균보다 실제 자신의 몸무게보다 훨씬 더 뚱뚱하다고 생각했고 72%는 얼굴이 예쁜 여자보다 몸매가 좋은 여자가 더 좋다고 답해 최근 다이어트 열풍을 반영하기도 했다.⁴⁾

이처럼 외모나 신체적 조건은 단순히 개인 자신을 가꾸는 차원이나 아름다워지고 싶은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 개인의 사회적 성공의 조건이 되거나 사회적 지위나 부를 상징하는 기준이 될 만큼 우리생활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자기 외모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는 개인의 자아 존중감을 고양시키는 반면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는 자신감을 없애고 사회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 같은 결과는 현대 여성들에게 외모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적 인식으로도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외모관리행동의 유형

외모관리행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하여 외모관리행동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서 출발한다. 많은 현대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시도로서 여러 분야의 외모관리행동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다. 외모가 경쟁력이 된 이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과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항상 외모관리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Kaiser, 1990)⁵⁾는 자신을 사회적 기준 안에서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고 이상적인 신체모습과의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여러 종류의 외모관리행동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는 동기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현대인에게 있어서 필수항목이 된 외모관리

행동에 관한 연구는

의상학을 중심으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다. 의복관련행동, 체중조절, 성형수술 등 주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항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미용학적 시각에서 여성들의 일상으로서 행하여지는 외모관리행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 하고자 하였다.

1) 메이크업(Make-up)

메이크업은 외형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미화 효과를 줄 수 있는 물리적 기능으로 첫째, 자신의 결점을 커버하고 개성 있는 화장을 연출함으로써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미적 역할 기능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자신의 본래 모습을 감추는 변장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통하여 자외선, 바람, 기후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적 역할 기능과 셋째로, 화장행위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면서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의 성격, 사고방식, 가치구구방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면요사를 할 수 있는 심리적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다. 메이크업의 기능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을 윤택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정서적 기능들을 수행한다.⁶⁾

2) 피부관리

피부 관리는 성형수술이나 주름제거수술등과는 달리 피부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지닌 원래의 기능을 유지시켜 젊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마사지 또는 초음파기나 저주파기와 같은 미용기구를 사용하거나 앵플이나 마스크, 팩 등의 피부관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피부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연령, 계절, 환경, 생활조건 등에 의하여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내, 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주름살, 피부탄력 저하, 건조 등의 미용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신의 피부를 관리해 주는 것이 바로 피부미용 혹은 피부 관리다.⁷⁾

3)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이라는 것은 영향력이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등의 하나로서 사회의 개방화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개성 표현의 수단이 되었고, 매스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급속한 유행 및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은 사회적 여건에 의한 여성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서의 탈피를 가져왔으며 1920년대의 헤어스타일의 급진적인 변화에 이어 1930년대의 Chales Nessler의 Cold Permanent Wave의 발명과 1960년대의 Vidal Sassoon의 과학적 커팅 기법의 발표 등이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을 크게 발전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헤어스타일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토달 패션이란 개념의 도입은 헤어스타일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되었다.⁸⁾

4) 의복행동

의복행동이란 사람들의 의복착용 행동과 의복구매 행동을 포함하는 인간행동으로 자신 속에 보이지 않게 내재하는 착용자의 여러 가지 심리상태를 의복을 통하여 미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을 말한다.⁹⁾ 또 의복행동이란 의복에 대한 타도, 흥미, 관심, 관습, 선택 및 착용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복을 통해서 착용자의 신분, 직업, 관심, 태도, 가치관 및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다.¹⁰⁾ 의복행동은 의복관심도, 의복의 동조성,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성,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의복의 심미성, 의복의 정숙성을 의미한다.¹¹⁾

의복에 대한 자기도취나 자아 만족도는 착용자의 감정이나 정서반응에 차이를 보이며, 착용자의 감정상나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여성에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

5) 체중조절행동

90년대 초반부터 조금씩 그 유행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다이어트는 불어난 체중으로 고민하난 사람

들, 심지어 다이어트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들의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다이어트의 사전적 의미와는 상관 없이 '다이어트 한다'는 것은 단지 살을 빼고 있다는 의미와 동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원래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이요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다이어트는 여성들이 행하는 외모관리의 영역으로서 자리 잡았다. 또한 현대 여성의 경우 외모를 더욱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여성들과 직장 여성들이 살찌지 않기 위해 다이어트와 체형관리에 관심을 쏟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5~54세의 직장 여성 비만은 26%에서 18%로 감소했으며, 특히 34세 이전의 젊은 층에서는 13.1%에서 8.5%로 크게 감소했다는 기사도 있다.¹²⁾

6) 성형수술

미용성형수술이란 신체적 기능장애를 호소하는 일이 없이 외견상 보기 싫다는 정신적 작용이 추가되어 행해지는 수술이라고 정의한다.¹³⁾

성형수술의 종류로는 얼굴성형, 가슴성형, 주름제거, 체형보정 등이 있다.

요즘은 성형수술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히, 졸업시즌이나 겨울 방학 때 성형외과를 찾는 여대생, 여고생, 심지어 여중생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노년층에서는 주름을 없애기 위해 '보톡스 주사'등을 맞는 등 외모관리행동 중 외모에 가장 확실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III. 연구문제 설정

1.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2. 외모관심도의 하위차원을 밝힌다.
3. 외모관심도의 하위차원에 따라 집단을 분류한다.
4. 20 ~40대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체중조절, 모발관리, 피부관리, 의류이용, 성형수술)의 차이를 알아본다.

IV. 연구방법

1. 예비조사

본 조사에서 명확하고 정확한 측정을 하기 위하여 1차 설계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응답자의 이해성, 용어의 적합성, 용어의 회피가능성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6년9월23일부터 26일까지 여성 20~40대를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이 중 설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문항을 적절한 표현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2. 본 조사

예비조사에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던 용어들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측정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2006년 10월 2일부터 2006년 11월 10일까지 20~40대 성인여성 49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무성의하고 불완전하게 작성한 4부를 제외하고 488부를 통계 처리하여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설문의 구성 및 내용

본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표1과 같이 외모관심도에 관한 설문 24문항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설문 30문항, 인구 통계적 특성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피부 관리는 일반적 피부 관리와 화장 정도에 관한 항목이 구분되지만 큰 의미에서 '피부 관리'라 명명하여 연구하였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외모관심도에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요인분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외모관심도의 하위차원에 따라 집단 분류하기 위하여 군집분석, 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분산분석의 사후검정으로 Scheffe'-test를 실시하였다.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분산분석의 사후검정은 Scheffe'-test를 실시하였으며, Scheffe-test 결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집단을 다른 문자(A<B<C)로 표시한 것.

V. 연구결과

1. 외모관심도

<표 1> 설문의 구성항목

조사내용	항목 수	조사 항목 및 평가방법	참고문헌
외모관심도에 관한 질문	24	외모무관심집단 타인의식형외모집단 자기관리형외모관심집단	여대생의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이은주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질문	30	다이어트 헤어 메이크업 피부 관리 의류 및 장신구	여고생의 신체만족도와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애
인구 통계학	6	연령, 결혼유무, 직업, 학력, 월수입, 한 달 외모 관리비용	

<표 2> 외모관심도 요인분석

	요인1 외적표현	요인2 체형관리	요인3 타인지각	요인4 신체 자신감	요인5 순수외모 관심	공통성 (<i>h²</i>)
나는 외출 전 준비하는 시간이 길다	0.737	0.287	0.049	0.175	-0.060	0.662
나는 내 머리모양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편이다	0.717	0.050	0.058	-0.006	-0.150	0.543
나는 수시로 거울을 본다.	0.657	0.123	0.146	0.143	-0.080	0.495
나는 내 차림새가 맘에 들지 않으면 신경이 쓰인다.	0.632	0.156	-0.055	0.354	-0.282	0.632
나는 체중을 줄이기 위해 항상 다이어트 중이다	0.175	0.854	0.050	0.087	0.079	0.776
나는 언제나 살찔 것을 걱정한다.	0.212	0.768	-0.173	0.230	0.066	0.723
나는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없다(R)	-0.011	0.729	0.138	-0.240	-0.214	0.654
살이 조금만 찌도 신경이 쓰인다.	0.257	0.652	-0.024	0.367	-0.176	0.657
나는 내 몸이 마음에 든다.	0.032	-0.068	0.779	0.127	0.151	0.652
나는 섹시한 매력이 있다	0.137	0.079	0.749	0.113	0.006	0.598
나는 신체적인 매력이 없다(R)	-0.131	-0.043	0.630	0.046	-0.348	0.539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멋지다고 여길 것이다	0.471	0.057	0.620	-0.064	-0.078	0.619
나는 옷이 몸에 맞는 것을 좋아 한다	0.041	0.038	0.245	0.775	-0.103	0.674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0.301	0.150	0.028	0.718	-0.048	0.632
나는 옷을 입을 때 신경 쓰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입는다(R).	0.261	0.025	0.047	-0.062	0.826	0.757
나는 내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다(R)	0.189	0.105	0.014	0.342	0.740	0.712
고유치	2.486	2.451	2.094	1.701	1.593	
설명변량(%)	15.536	15.322	13.088	10.630	9.954	
누적변량(%)	15.536	30.858	43.946	54.575	64.530	
신뢰도	0.750	0.787	0.690	0.589	0.656	

R : 역코딩

20 ~40대 여성의 외모관심도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외모관심도에 관한 16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측정 자료가 요인분석의 가정을 만족시키는지 알아보았다. Bartlett의 단위행렬(구형성) 점검 결과 $\chi^2=2404.066$ (Sig.=0.000)이므로 변수들 사이에 요인을 이룰만한 상관관계가 충분하고, KMO의 표본적합도 점검결과 KMO 값이 0.806로 나타났으며, 공통성(communality) 등을 점검한 결과 측정변수 모두 0.495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 자료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의 수는 공통성, 고유치 등을 살펴보았을 때 5개

가 적절하였으므로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의 하위요인을 5개로 설정하였다. 이들 요인의 총 설명력은 64.530%고, Cronbach' α 값이 모두 0.589 이상으로 이다.

요인1(15.536%)은 외출과 겉모습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외적표현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2(15.322%)는 체형관리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체형관리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3(13.088%)은 타인의 시선과 관련된 외모관리행동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타인지각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10.630%)는 신체만족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신체만족도요인'으로 명명하였고, 요인5(9.954%)는 외모관심 정도에 따른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므로 '순수외모관심요인'으로 명명하였다.

1)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 분류

<표3>은 20 ~40대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의 하위차원을 이용하여 집단을 분류하기 위해 각 요인의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3 ~5개의 집단으로 유형화시킨 후 각 집단의 빈도와 외모관심도 요인의 유의한 차이를 고려한 결과,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각 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집단1은 모든 요인의 값이 낮게 나타났고 특히 순수외모관심요인에 낮게 나타났으므로 외모무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2는 외적표현요인과 신체만족요인의 값은 높게 나타나고 순수외모관심요인의 값은 중간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인의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3은 체형관리요인과 순수외모관심요인의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자기

만족과 자기개발에 관심이 많은 집단으로 판단되어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으로 명명하였다.

2) 외모관심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집단에 속하는 성인여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외모관심도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 결혼여부,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대학 졸업 전과 후의 외모관리행동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감안하여 20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었다.

외모무관심집단(집단1)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40대가 38.8%, 30대가 37.4%로 나타났고,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혼인 경우가 39.7%, 미혼인 경우가 26.2%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평균 비용은 5만원 미만이 44.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연령대가 높고 기혼일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도가 비교적 떨어짐을 알 수 있고, 외모관리비용에 있어서도 5만원 미만의 값이 큰 것으로 볼 때 외모에 대한 금전적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외모관심도에 따른 집단 분류

외모관심도요인	집단1 (N=157)	집단2 (N=164)	집단3 (N=176)	F
외적표현 (M=3.45)	-0.673 A	0.511 C	0.124 B	75.859***
(체형관리) (M=3.24)	-0.049 B	-0.780 A	0.771 C	173.518***
외모관심요인3 (타인지각) (M=2.96)	0.071 B	-0.238 A	0.159 B	7.472**
외모관심요인4 (신체자신감) (M=3.92)	-0.717 A	0.573 C	0.106 B	93.926***
외모관심요인5 (순수외모관심) (M=1.96)	0.677 C	0.068 B	-0.667 A	108.178***

p<.01, *p<.001

<표 4> 외모관심도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외모관심도 3집단				χ²(df)
		집단1	집단2	집단3	Row total(%)	
연령대	20대 전반	46 25.0% 29.3%	68 37.0% 41.5%	70 38.0% 39.8%	184 37.0%	14.785(6)*
	20대 후반	30 30.0% 19.1%	25 25.0% 15.2%	45 45.0% 25.6%	100 20.1%	
	30대	43 37.4% 27.4%	36 31.3% 22.0%	36 31.3% 20.5%	115 23.1%	
	40대	38 38.8% 24.2%	35 35.7% 21.3%	25 25.5% 14.2%	98 19.7%	
결혼 여부	기혼	79 39.7% 50.3%	60 30.2% 36.6%	60 30.2% 34.1%	199 40.0%	10.319(2)**
	미혼	78 26.2% 49.7%	104 34.9% 63.4%	116 38.9% 65.9%	298 60.0%	
월평균 수입(용돈)	100만원 미만	54 30.2% 34.4%	62 34.6% 37.8%	63 35.2% 35.8%	179 36.0%	8.786(6)
	100~200만원 미만	47 37.9% 29.9%	30 24.2% 18.3%	47 37.9% 26.7%	124 24.9%	
	200~300만원 미만	31 30.4% 19.7%	33 32.4% 20.1%	38 37.3% 21.6%	102 20.5%	
	300~400만원 미만	25 27.2% 15.9%	39 42.4% 23.8%	28 30.4% 15.9%	92 18.5%	
월평균 외모관리비용	5만원 미만	56 44.1% 35.7%	40 31.5% 24.4%	31 24.4% 17.6%	127 25.6%	22.030(6)**
	5~10만원 미만	48 32.0% 30.6%	54 36.0% 32.9%	48 32.0% 27.3%	150 30.2%	
	10~20만원 미만	31 26.5% 19.7%	39 33.3% 23.8%	47 40.2% 26.7%	117 23.5%	
	20~30만원 미만	22 21.4% 14.0%	31 30.1% 18.9%	50 48.5% 28.4%	103 20.7%	
	Column total(%)	157 31.6%	164 33.0%	176 35.4%	497 100.0%	

*p<.05, **p<.01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집단2)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20대 전반이 37.0%, 20대 후반이 25.0%, 30대가 31.3%, 40대가 35.7%로 나타났고,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혼인 경우가 30.2%, 미혼인 경우가 34.9%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평균 비용은 5만원 미만이 31.5%, 5~10만원 미만이 36.0%, 10~20만원 미만이 30.1%, 20~30만원 미만이 30.1%로 나타났다.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은 20대 전반이 비교적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대부분 학생이고, 아직 자신에 대한 정확한 스타일과 정체성이 확립되기보다 유행에 민감한 연령대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에 따른 외모관심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집단3)에 속하는 표본의 경우 20대 전반이 38.0%, 20대 후반이 45.0%, 30대가 31.3%, 40대가 25.5%로 나타났고, 이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기혼인 경우가 30.2%, 미혼인 경우가 38.9%로 나타났으며, 외모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평균 비용은 5만원 미만이 24.2%, 5~10만원 미만이 32.0%, 10~20만원 미만이 40.2%, 20~30만원 미만이 48.5%로 나타났다.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은 20대 후반과 30대가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보다 비교적 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대학졸업을 기점으로 20대 후반부터 타인과 유행에 민감한 20대 초반보다는 자신의 이미지와 건강을 중

요시하는 자기 관리적 차원에서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외모관리비용도 20~30만원 미만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20대 후반과 30대의 경제력과 자기 자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젊은 여성들의 라이프스타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 행동의 차이

20~40대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외모관리행동은 '체중조절, 모발관리, 피부 관리, 의류 이용, 성형수술'의 5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1)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체중조절'의 차이

<표 5>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 중 '체중조절'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관리외형 외모관심집단의 값이 가장 유의하게 나타났다. 자기관리외형 외모관심집단집의 경우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묻는 문항의 평균값(3.91)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한다. 와 '체중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의 평균값도 각각 3.30, 3.43로 나타나 자기 관리를 위한 외모에 관심이 높

<표 5>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체중조절'의 차이

체중조절	집단1 M.(S.D.)	집단2 M.(S.D.)	집단3 M.(S.D.)	전체 M.(S.D.)	F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 경험이 있다	3.24(1.18) A	2.96(1.35) A	3.91(0.92) B	3.38(1.22)	30.556***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헬스, 에어로빅, 조깅 등등)을 한다.	2.78(1.20) B	2.33(1.18) A	3.30(1.08) C	2.81(1.22)	30.039***
다이어트를 위한 식품을 산 경험이 있다	2.34(1.25) B	1.93(1.24) A	2.72(1.48) C	2.34(1.37)	15.054***
체중 조절을 위해 저칼로리 식품만 골라 먹는다.	2.18(1.03) B	1.87(1.07) A	2.57(1.14) C	2.22(1.12)	17.949***
체중 조절을 위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	2.53(1.21) A	2.46(1.42) A	3.43(1.24) B	2.82(1.36)	30.242***

***p<.001

을수록 체중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강을 위한 자기 관리차원에서 항상 체중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사료된다.

2)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모발관리'의 차이

<표 6>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모발관리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3집단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외모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미용실에 간다. 의 문항에 세 집단 의 값이 비교적 고르게 나온 것으로 보아 외모에 관심이 많거

<표 6>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모발관리'의 차이

모발관리	집단1 M.(S.D.)	집단2 M.(S.D.)	집단3 M.(S.D.)	전체 M.(S.D.)	F
외모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번 이상 미용실에 간다.	2.08(1.03) A	2.35(1.20) AB	2.59(1.24) B	2.35(1.18)	7.931***
두피관리를 받기 위해 미용실을 간 적이 있다	1.58(0.76) A	1.65(1.04) A	2.06(1.19) B	1.77(1.04)	10.803***
헤어 관리를 위한 비용은 1회당 5만원 이상 이다	2.34(1.28) A	2.61(1.35) A	3.04(1.45) B	2.68(1.39)	11.079***
나는 매일 헤어 드라이로 머리를 정돈한다.	2.43(1.31) A	3.13(1.37) B	3.20(1.41) B	2.93(1.40)	15.532***

***p<.001

<표 7>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피부 관리'의 차이

피부 관리	집단1 M.(S.D.)	집단2 M.(S.D.)	집단3 M.(S.D.)	전체 M.(S.D.)	F
피부 관리를 위해 고가(개당 10만원 이상)의 기능성 화장품을 구매 한 경험이 있다	2.54(1.40) A	2.47(1.42) A	3.02(1.57) B	2.69(1.49)	7.153 **
나는 1주일에 1번 이상 피부 관리실을 간다.	1.81(1.08) AB	1.55(1.03) A	2.10(1.40) B	1.83(1.21)	8.840 ***
피부 관리를 위한 비용은 1회당 5만원 이상이다	1.78(1.03) A	1.72(1.16) A	2.30(1.46) B	1.94(1.26)	11.474 ***
나는 일주일에 1번 이상 집에서 팩(또는 마사지)을 한다.	2.43(1.16) A	2.54(1.25) A	3.32(1.21) B	2.78(1.27)	27.684 ***
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메이크업을 전문가에게 받은 적이 있다	1.99(1.24) A	1.96(1.37) A	2.66(1.60) B	2.22(1.45)	13.306***
나는 기초화장(스킨, 로션)만 하고 다닌다.	3.04(1.28) C	2.19(1.29) B	1.84(1.22) A	2.33(1.36)	39.054 ***
나는 부분메이크업(눈썹, 입술등)을 하고 다닌다.	2.87(1.28)	3.02(1.41)	3.09(1.37)	3.00(1.36)	1.053
나는 전체 메이크업을 매일 한다.	2.25(1.30) A	2.85(1.51) B	3.14(1.40) B	2.76(1.45)	17.204***
나는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	2.22(1.25) B	1.73(1.17) A	1.48(0.96) A	1.79(1.16)	18.047 ***
나는 네일 케어를 1달에 1번 이상 받는다.	1.55(0.98) A	1.50(1.12) A	2.16(1.42) B	1.75(1.23)	16.059 ***

p<.01 *p<.001

나 적은 집단 모두가 미용실 사용횟수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의 모발관리 행동은 외모관심에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모발관리 산업의 확대와 다양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3)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피부 관리'의 차이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피부 관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표7>에서와 같이 일반적 피부 관리 부분에서는 자기관리외형 외모관심집단의 값이 각 항목마다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외모무관심집단과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의 값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이 피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겠다. 또 최신 웰빙 트렌드에 맞춰 인위적인 메이크업의 아름다움보다는 건강한 피부가 미의 기준이 되고 있는 추세의 반영으로도 사료된다. 화장 정도의 경우 기초화장만 하고 다닌다는 문항만 외모무관심집단(M.=3.04)이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이나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크게 나타나 차이가 보인다. '네일 케어를 1달에 1번 이상 받는다'의 문항에서도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의 평균값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은 부분 메이크업에 있어서 세 집단의 평균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외모에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부분메이크업(눈썹, 입술등)은 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의류이용'의 차이

<표 8>은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의류이용'에 관한 차이를 알아 본 것이다. 세 집단 중 타인 의식형 외모관심집단과 자기관리형 관심집단이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었다. 이는 모두 의류이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이한 사항은 '몸매를 가꾸기 위해 체형보정속옷을 입고 다닌다.'의 항목에서 외모무관심집단의 값이 비교적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외모무관심집단이 많이 분포한 40대에서 체형보정 속옷을 많이 입고 다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연구자는 판단된다. 또 의류나 장신구의 구입비용은 세 집단 모두 대체로 1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성형수술'의 차이

<표 9>는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성형수술'의 차이를 알아본 것으로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의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형수술이나 영구화장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요즘 성형수술이나 반영구 화장을 통해 외모의 단점을 극복하고 정신적 안정감을 얻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리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특이한 사항은 치아 교정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8>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의류 이용'의 차이

의류 이용	집단1 M.(S.D.)	집단2 M.(S.D.)	집단3 M.(S.D.)	전체 M.(S.D.)	F
나는 몸매를 가꾸기 위해 체형보정속옷(올인원, 코르셋 등)을 입고 다닌다.	1.82(1.18) AB	1.62(1.09) A	1.98(1.30) B	1.81(1.20)	3.751**
날씬한 허리를 위해 허리를 꼭 졸라매는 옷차림을 한다.	1.62(0.94) A	1.75(1.11) AB	1.97(1.10) B	1.79(1.06)	4.505*
의류나 장신구의 구입은 한 달에 1번 이상 한다.	2.21(1.18) A	3.13(1.27) B	3.44(1.19) B	2.95(1.32)	45.005***
의류나 장신구의 구입비용은 회당 10만원이 넘는다.	2.27(1.19) A	2.74(1.31) B	2.95(1.36) B	2.67(1.32)	12.117***

*p<.05, **p<.01, ***p<.001

<표 9>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성형수술'의 차이

성형수술	집단1 M.(S.D.)	집단2 M.(S.D.)	집단3 M.(S.D.)	전체 M.(S.D.)	F
나는 영구화장(눈썹, 아이라이너, 입술, 속눈썹 연장 등)을 한 경험이 있다	1.76(1.18) A	1.93(1.44) A	2.45(1.65) B	2.06(1.47)	10.287***
나는 성형수술을 1곳 이상 한 경험이 있다	1.69(1.19) A	1.62(1.17) A	2.40(1.72) B	1.92(1.44)	16.141***
나는 치아 교정을 받은 적이 있다.	1.64(1.19)	1.58(1.25)	1.60(1.24)	1.61(1.23)	0.111

***p<.001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 ~40대 성인 여성이 추구하는 외모 관심도에 따른 세분화 된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파악하여 미용 산업의 각 분야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들의 외모관리는 단지 여성의 순수한 본능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외모가 중요시 되는 현대 사회의 구조 속에서 행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중 특징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총 497명 중 연령대별로 20대가 28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나 재학이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미혼이 298명, 기혼이 199명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이 가장 많았다.

둘째, 외모관심도의 하위차원을 밝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 ~40대 여성의 외모관심도의 하위차원을 밝히기 위해 외모관심도에 관한 요인분석결과 외적표현요인, 체형관리요인, 신체자신감요인, 타인지각요인, 순수외모관심요인으로 총 5개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외모관심도에 따른 하위차원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외모무관심집단,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외모무관심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외모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평균 비용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으며,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은 20대 초반에 특히 많이 분포하고, 외적표현요인과 신체자신감요인의 값이 높게 나온 것은 화려한 겉모습과 유행에 많이 치중하

고, 시기적으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특성을 잘 나타내 준다.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은 20 ~30대에 걸쳐 고루 나타났다. 외모관리행동 중 체형관리요인 값이 높게 나타났고, 외모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월평균 외모관리비용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기개발 중 외모관리에 금전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대 후반과 30대의 경제력과 자신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 ~40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외모관리행동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인 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모발관리'의 차이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세 집단의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특히, '외모관리를 위해 한 달에 한번 이상 미용실에 간다. 의 설문 문항의 값은 세 집단의 값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외모에 관심이 많거나 적은 집단 모두가 미용실 사용횟수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인 여성의 대부분이 헤어스타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일반적 피부관리 부분에서는 자기관리형 외모관심집단의 값이 각 항목마다 높게 나왔으며 이는 자기관리에 관심이 높은 집단일수록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의류이용'에 관한 차이는 세 집단 중 타인의식형 외모관심집단과 자기개발형 외모관심집단의 값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의류이용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여성의 외모관심도에 따른 '성형수술'의 차이는 자기개발형 외모관심집단의 값

이 높게 나타나 자기관리의 관점에서 외모관심이 높은 집단일수록 성형수술이나 영구화장등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외모관련사업과 의류시장에 소비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후속연구로 청소년, 남성, 실버세대 등 그 대상을 다각화 하여 보다 세부적인 외모관리행동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외모관리행동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후속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바람직한 정신적인 미(美)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Kaiser,S(1990). *The Social Psychology og Clothing*.NY:Macmillan
- 2) 성영신, 박은아, 우석봉 (1999) "광고에 나타난 신체가치관 연구. 광고연구", 제 43호, 29-55.
- 3) 허미영, "여성의 체형관리 경험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비비드'체형관리실 사례 분석"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 4) 한국여성들 "예뻐야 대접"..외모지상주의 '루키즘' 확산 *동아일보*, 2002.8.15
- 5) 김봉인, "화장행위의 주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미용학회지*,Vol.1 No.1, 1995 pp. 19-36
- 6) 김운주, "여대생들의 여드름 관리 행태와 인상을 활용한 여드름 관리에 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Vol.6 No.1,2000 pp 149-163
- 7) 이효숙, "패션이미지에 따른 의복스타일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경성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 8) 박미향, "여대생들의 화장행동과 의복행동간의 요인별 비교 분석" 경성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 9) 간운자, "여성의 직업과 의상흥미 영역간의 상관성 연구" 건국대학교 의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1981.
- 10) 심경진, "중학생의 성역할 정체감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의복행동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 전공 석사학위논문, 1996.
- 11) 사비즈, 뷰티에신저 양성사업. 2003.09.17. *머니투데이 자료출처* <http://moneytoday.co.kr>
- 12) 유재덕, "미용수술후 부작용(후유증)의 유형과 대책" *진단과치료* Vol.2 No.10 1982.

(2007년 3월 23일 접수, 2007년 5월 29일 채택)